

광주서 민주주의·인권 위기 속 도시 역할 모색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권위주의·포퓰리즘 대응 유엔 인권 최고대표 첫 참석...국내외 1000명 집결 강기정 시장 “광주정신, 인권 지키는 국제 연대의 힘”

“2026 세계 인권도시포럼”(이하 ‘인권 포럼’)이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관련기사 18면
올해로 16회를 맞은 인권포럼은 광주 시와 유네스코(UNESC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 주최한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국내외 인권도시·국제기구·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명이 참여해 15일까지 국제사회 인권 현안을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전략 및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인권도시 광주의 민주·인권 가치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도시 차원의 인권정책과 세계 인권도시 간 협력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강기정 시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확산으로 민주

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도시의 역할과 국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인권도시와 다양한 인권 주체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와 인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주는 연대와 시민 참여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라며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세계 시민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모르텐 사에름(Morten Kjaerum) 전 유럽연합 기본권장 국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은 지역사회와 도시에서 시작된다”며 “인권도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비자유주의적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끝나지 않은 1980”을 주제로 광주 5·18과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를 연결해 분석했다. 강 교수는 “광주는 1980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비상통치와 국가폭력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인권도시는 이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실천적 대응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그림자, 혐오’라는 주제 발표에서 “권위주의 정치가 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정치적 통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시민 연대와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앤 카머프 워드 뉴욕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피터칸 시티넷 태국 국가인권위원, 모르텐 코흐 안데르센 라울발렌베리인 권연구소 국장이 참여해 세계 도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도시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청소년, 여성, 장애, 스포츠, 인권마을 등 분야별 인권 현안 토론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포용도시연합 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회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철강·금속 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 구축

국비 140억 확보...2031년까지 광양 익산산단에 조성 품질 개선·생산성 향상 등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산업기술지원원 광양분소

전남도가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철강·금속 인공지능전환(AI)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광양 익산산업단지에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

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운 철강·금속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제조 현장의 AI 전환(AI)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종합지원센터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국비 140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한국산업기술지원원을 주관기관으로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철강협회, 한국철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단제조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강·금속 제조 및 가공 공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공정 품질 예측, 실시간 이상 탐지, 공정 최적화 등 현장형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기업 맞춤형 AI 기술지원과 재직자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열 기자 hoibul@gwangnam.co.kr

이 대통령 “청소년·여성 범죄에 전면전”

‘광주 고교생 피살’ 피해자 애도...“우범지 특벌치안 철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광주 고교생 흉기 피살사건’과 관련, 공직자들을 향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전면전 선포’의 마음가짐으로 예방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베이징서 6개월만에 대좌

미중 정상 ‘협력’ 강조...관세·이란·대만문제 논의 주목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의 행배를 좌우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양국 정상은 인민대회당 앞에 나란히 계양된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한 뒤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국민 환영 행사를 함께했다.

이후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했다.

양국 정상은 인민대회당 앞에 나란히 계양된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한 뒤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국민 환영 행사를 함께했다. 이후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했다. 양국 정상은 인민대회당 앞에 나란히 계양된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한 뒤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국민 환영 행사를 함께했다. 이후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관세 갈등과 수출 통제 문제를 비롯해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 현안과 국제 정세 전반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상호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동부권 선거,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에 무게

▶1면에서
노 후보는 민선 8기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순천시 총예산이 2021년 1조6307억원에서 2026년 1조9450억원으로 확대됐고, 국도비 확보 규모도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 역량을 강조한다. 대형 국비사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순천은 과거에도 정당 구도보다 후보 개인의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강하게 작용했던 지역인 만큼, 현지 프리미엄과 민주당 공천장의 총출이 본선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과 손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치 체신문을 내세우고 있다. 시민과 시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부 구상을 통해 기존 시정 운영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손 후보가 민생 회복, 노 후보가 행정 성과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정치 구조 개혁과 책임정치를 내세워 제3의 선택지를 부각하고 있다.

광양은 민주당 정인회 후보와 무소속 박성현·박필순 후보가 맞붙는다. 광양은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4차례 연속 무소속 시장을 배출한 지역으로, 동부권에서도 정당보다 인물 경쟁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특성상

유권자들은 산업 경쟁력, 고용, 지역경제 회복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다.

정 후보는 현지 시장으로서 시정 연속성과 산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이차전지 생태계 고도화, 수소 산업 기반 구축,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을 통해 광양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구상이다. 노동계와의 정책 협약 등 조직 기반을 다지는 움직임도 이어가고 있다.

박성현 후보는 여수관광항만공사 사장 출신의 향만·물류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경제 회복을 강조한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격이 박탈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만큼 공천 과정에 반발한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필순 후보는 조국혁신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합류했다.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광양 제철소와 지역 상생,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중도·합리층 유권자층을 공략하고 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여수는 경선 후유증과 산업 위기 대응, 순천은 공천 논란과 현지 행정성과, 광양은 무소속 강세와 산업 경제 비전이 핵심 변수다”면서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 기반을 앞세워 동부권을 다시 묶어낼지,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에 무게를 둘지가 지방선거 동부권 판세를 가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중련 열차’ 호남·경부선서 시범운행

(KTX·SRT)

KTX 열차와 SRT 열차를 하나로 연결한 ‘중련 열차’가 15일부터 철도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이같은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시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련 열차는 호남선(토·일요일)과 경부선(금·일요일) 일부 구간에서 상·하행 한 차레씩 순환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되던 호남선(수서~광주충성)은 이번 중련 열차 도입으로 좌석이 기존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난다.

중련 열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의 운임을 적용받기 때문에 KTX를 기준으로 운임이 약 10% 할인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승차권 예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모바일 앱, 누리집, 역장구 등에서 할 수 있다. 향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련 열차 도입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코레일, 에스알과 차량 연결 시험,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시운전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 의료용품 점검 강화

병원·판매업체 2951곳 관리

전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수입 변동성에 대응해 의료용품 공급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필수 의료용품 재고와 유통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223개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2728개소 등 총 2951개소다.

나프타는 주사기 등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의 주요 원료로,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용품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점검 품목은 필수 의료제품 8개다.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투석 관련 용품, 의료폐기물 용기, 수액제 백, 멸균포장제, 카테터, 소변백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